

현장

수진스님의 전통복장의식 재현

간절한 예경... 염원... 부처님 나투시네

일반적으로 정안식은 사부대중이 동참해 상대를 치르는 의식이어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복장식은 몇몇 스님과 시주자 등이 정안식 이전에 소문내지 않고 치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은밀한 복장식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의식을 전통적인 예법으로 주관하는 스님은 전국에 단명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인공은 태고종 3, 4대 종정을 역임한 목담스님의 상좌 수진스님(담양 용화사주지)이다.

수진스님은 지난 12일 수락산 염불사(주지 호영)에서 주최한 복장식을 주관하며 전통복장의식을 재현했다. 그 현장을 통해 복장식의 의의와 의미를 알아 보았다.

복장식의 첫 순서는 부처님을 모실 절에서 마련한 오곡밥 세그릇, 나물반찬 세그릇, 감로수 세그릇, 과일 세접시, 떡세접시를 일주문 앞과 마당 부처님 모실 법당 앞에 각각 차려 놓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시는 시간에 도량 수호신장과 일



“지극한 정성”

다섯방향으로 둘러앉은 스님들이 작은 복장통(보배병)에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넣고 있다. 사진은 운문사 복장의식 장면이다.

를 유지해 마구니의 침범을 막는다.

각각의 복장통을 작은 복장통에 넣는 사이 사이에는 '신묘장구대라니' '화엄경약찬계' '반야심경' '법성계' 등을 대경들이 이어 외우고 집전하는 스님들은 각각의 품목에 정해진 주력을 한다.

이같은 순서로 작은 복장통이 채워지는데 이 작은 복장통은 다르게 보배병이라고도 한다. 이 보배병은 만법을 포용하는 여래의 몸을 뜻하는 것이다. 보배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폐시켜 큰 복장통에 빔위를 맞춰 넣는다. 큰 복장통은 후령통이라고도 하는데 보배병을 넣기 전에 밑바닥에 거울을 깔아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는 법광(法光)을 비추게 한다.

후령통 안에 보배병이 다 들어간 뒤 그 위에 다시 진언을 받으며는 종이를 덮는다. 부동진언(不動眞言)을 외며 후령통을 단단히 봉해 3색천으로 싸 오색실로 묶는 것

으로 복장통 채우는 의식은 끝난다. 이로써 이 복장통은 법계의 귀한 물품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은 만중생의 번뇌를 거둬가며 위없는 법공을 법계에 비추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3색천으로 싸여진 복장통을 불사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는 순서에서는 복장통과 발원문 신도들이 시주한 각종 보석류 불상조상기 시주자 명단등이 함께 준비된다.

주력을 하는 엄숙한 속에서 주관하는 스님이 각종 복장통을 부처님 뱃속에 넣는 것으로 복장식은 마무리가 된다.

법당 밖과 마당 일주문 밖에 차려진 음식들을 도량 여기저기에 뿌려 만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4시간 동안의 복장 의식의 마지막 순서다.

임연태 기자

◇복장에 들어가는 65가지 공양물

종류	명칭	동	남	서	북	중앙
5곡(穀)	보리	피	벼	녹두	계	
5보(寶)	생금	장주	생은	유리	호박	
5의(義)	인상	감초	계심	가지과	부지	
5의(義)	정육량	정향	곡향	청향	부향	
5의(義)	대향	화향	소향	자향	우향	
5의(義)	시라개자	자개자	해개자	행개자	행개자	행개자
5의(義)	정색선	적색선	백색선	흑색선	황색선	황색선
5의(義)	정시화	적시화	백시화	흑시화	황시화	황시화
5의(義)	(불꽃)	(여불꽃)	(가을꽃)	(겨울꽃)	(사철꽃)	
5의(義)	축배나무잎	가래나무잎	자귀나무잎	오동나무잎	버들잎	
5의(義)	거시초	마하거시초	이거시초	거시초	거시초	거시초
5의(義)	향계	향계	향계	향계	향계	향계
5의(義)	향지	향지	향지	향지	향지	향지

보석·곡식등 '세상의 보배' 65종 정성껏 공양 “불상을 성스러운 법체로 만드는 거룩한 의식”

제중생에게 그 공덕을 배분하는 의미이다.

복장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크고 작은 복장통에 복장물품을 넣는 대목이다. 이 순서가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하는데 보통 2시간반

~3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복장통에 65가지나 되는 물품을 넣기 때 문이고 각각의 물품을 넣을 때마다 해당되는 주력을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배 속으로 들어가는 복장 통은 순으로 만들어진다. 큰 복장통 1개에 작은 복장통 5개가 들어 간다. 작은 복장통은 5x7cm정도의 사각형이며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다섯 방위를 뜻하며 각 방위별로 청(동) 적(서) 백(남) 흑(북) 황색(중앙)의 표시가 붙어 있다. 이들 색이 곧 방위를 뜻하는 것이다.

작은 복장통에 들어가는 물품 65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을 뜻한다. 보석과 곡식과 길상초 글장자 등 13종류가 5점씩 각각의 방위로 배치된 후에 들어 가므로 65가지가 되는 것이다.

(도표참조) 복장의식은 큰 탁자를 중심으로

다섯명의 스님이 둘러 앉아 진행한다. 주관하는 스님을 따라 염불을 외우고 스님이 “5보요”하며 금 진주는 유리 호박을 각각 나눠주면 각 방위로 앉은 스님들은 “흠”하며 물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조심스레 작은 복장통에 각각의 물품을 하나씩 넣는데 매우 엄숙한 분위기



◇후령통을 보배병과 진언들로 채운 뒤 3색의 천으로 싸서 5색 실로 묶고 불상의 배부분으로 넣는다. 염불사 복장의식 장면.

인문부 전통 맥 유일하게 이은 수진 스님

“복장불사는 모시는 부처님에 대한 중생의 지극한 예경입니다. 가장 신성스럽고 귀한 물건들을 부처님 배부분에 넣으므로 그 부처님은 많은 중생이 우려 외지하는 색신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처님을 조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전통복장의식의 맥을 유일하게 잇고 있는 스님으로 알려진 수진 스님, 스님은 조선 중기 이후의 화담, 금해, 목담스님으로 이어진 복장의식의 법식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것이 수행자로서의 가장 큰 공부라고 말했다. 염산재 의식에 도 능한 스님은 30여년간 복장의식을 진행해 왔다. 금산사 열화사

(서울) 운문사 부산 관음사 해인 사보현암 최근의 중주 성곡사 등 수 많은 사찰의 부처님 복장을 채운 스님은 복장의식의 가장 큰 의미를 두기까지 새겨 주었다.

화담→금해→목담 맥 30년째 “스님들에게 바르게 전수되길”

“나는 중생이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을 최상의 존재로 받들어 모시고 그 위엄을 외지해 중생의 고달픈 삶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복장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불교가 조성한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켜 신앙의 대상으로 우러르게 하는 의식이 복장식이란게 스님의 설명이다. “다음은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부처님이 색신

불로 화현해 중생의 염원을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복장 의식은 정말로 우리같이 살아 계신 부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는 의식이란 것입니다.”



아오는 스님들이 있지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질려 이내 포기하고 만다는 스님은 소중한 불가의 의식이 보다 바르게 많은 스님들에게 전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Having torn the ties, having broken the net as a fish in the water, being like a fire not returning to the burnt plac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 한 번 불타 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With downcast eyes, and not prying, with his senses guarded, with his mind protected free from passion, not burning (with lust),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해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켜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Remo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gihin (householder), like a Parikhhatta tree whose leaves are cut off, clothed in a yellow robe after wandering away (from his hous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잎이 저버린 파리헛타 나무처럼, 세속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10

◆ Not being greedy of sweet things, not being unsteady, not supporting others, going begging from house to house, having a mind which is not fettered to any househo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달콤한 것에 탐착하지 말고, 욕구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도 없으니 문지방마다 밤을 밟며 거주처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Having left the five obstacles of the mind, having dispelled all sin, being independent, having cut off the sin of desir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마음속의 다섯가지 장애를 버리고 온갖 번뇌를 제거하여 외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eter 속박, 구속
*burnt (burn의 분사형) 태우다, 타다
*lust 강한 욕망
*depel 끊어버리다, 흔드려다.

한영우 기자

생활 속의 불교 17

한 생각 나고 죽는 윤회 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가 한 번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한 생각은 진화의 힘이 된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기어다니는 몸을 벗고 날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게 된다.

마음은 진화력이다.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육신의 기능도 발달한다. 육신만이 아니라 중생심도 점차 개발이 되어 끝내는 성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세상 만사도 다 마음의 설계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어느 것, 어느 경우 하나라도 마음 먹기와 무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이다.

심 보름 곱게 쓰지 못하면 결과도 좋을 리 없다. 나쁜 마음, 잘못된 생각을 품고 키우면 심조(心造)는 망조(亡造)로 이어진다. 한 생각에 의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것도 윤회이다. 죽어서 새 몸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만 윤회가 아니라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각을 따라 우리는 찰나간에 윤회한다. 방금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을 돌리게 되면 나쁜 생각을 했던 그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 난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생각 늙어 죽고 한 생각 다시 태어나는 바퀴를 이를 계속하고 있다. 고로 한 생각은 진화와 퇴보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한다. 차원 높게 승진하느냐 낮은 차원으로 굴러 떨어지느냐 판가름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의 삶이란 찰나찰나 한 생각



의 모습-집적인 것이지 다른 모습이 아니다. 고로 평생의 삶보다 한 순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듭나면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진화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다. 고로 한 순간을 새 삶처럼 맞이해야 한다. 방금 전의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새로 태어나 세상 물정을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초보 운전처럼 한 눈 팔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진화의 빛나는 훈장을 목에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중대중 넘어갈 때, 다만 습관에 위지해 그냥저냥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한 생 한 생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셈이 된다.

어느 누구라도 '당신의 생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니 그러저럭 살아가

라'는 권고를 받으면 남의 소중한 일생을 허물게 분다며 화를 빌려 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 순간 순간을 허비하며 산다. 시간을 물 쓰듯 흘려보내고 기회를 기회답지 않게 지나쳐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등불 삼아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인생은 마음공부의 터전이니 찰나찰나 지켜보는 실천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

한 생각의 윤회바퀴를 잘 굴러야 한 생의 윤회바퀴도 진화를 향해 구른다.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길이다.

협찬: 제주지원